

2006년도 육우분과위원회 제2회 임원회의 개최결과

협회 육우분과위원회(위원장 라기혁)는 3월 28일(화)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제2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 조직활성화 및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도위원회 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지부결성 확대를 위해 각 지부별로 해당도내 신규 지부 결성을 전담,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부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을 통해 미국산쇠고기 수입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기타논의에서는 우리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하나로마트에 국내산육우 매장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육우전문매장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하였다. ☺



육우산업 육우인이 지킴시다!

□ 성명서 □

더 이상 필요없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방침 당장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내에서 BSE 감염소가 또다시 출현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수입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있는 것은 우리 농가들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처사다. 정부는 '98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따지고 있을게 아니라 당장 수입재개 방침을 철회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답은 명확하다. 미국산 감염소의 나이나 협상조건이 아니라, 미국산쇠고기 안전성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BSE가 미국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영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으로는 BSE 감염소가 언제든 우리나라에 수입될 확률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건강과 소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03년부터 미국발 BSE 감염소의 출현을 연례행사처럼 바라보고 있다. 또한 미국내에서조차도 BSE 검역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무슨 증거와 이유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동물성 사료금지제에 따라 '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는 주장과 근거는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고, 미국정부조차도 이것이 안전성유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강행추진 때문에 정부가 이를 묵과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수입재개 방침을 고수한다면, 이는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과연 우리정부가 미국내 수출작업장 점검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이를 피해가려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이 100% 확보될 때까지 수입재개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 3. 28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